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나의 일기

- 피곤한 월요일이다.. 월요일에는 일부러 더욱 옷과 화장에 신경 쓰고 나오지만 다크서클과 부은 눈을 커버할 수가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주말만 기다려 왔었는데, 막상 주말이 되어도 온전히 하루도 쉬지 못하니 월요일이 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작년 이맘때쯤은 대학원 수업만 듣고 있어 잠도 많이 자고, 내 시간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왠지 백수 같아서 부모님 눈치 보느라 자신감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신, 그 반대 것을 얻었다. 가끔 그때가 그리지만, 역시 지금이 당당해서 좋다. 여전히 비정규직의 애환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는 꼭 안정적인 곳으로 가야지!!!

퇴근 후에 대학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를 못 본지 벌써 1년 반이 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굴 만나기가 귀찮다. 특히 새로운 사람이면 더 피곤하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한 둘만 자주 만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오후에는 2서고에 심부름을 다녀왔다. 본관에서 2서고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쯤 되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해서 기분은 좋았다. 매일 본관 지하서고에 있다 보면 밖에 날씨가 더운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기분이 참 요상하다. 그래서 가끔씩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2서고에 들러서 분홍이 언니에게 서류를 건네받고, 언제 족발을 먹으러 갈까 의논을 조금 하다가 내려왔다.

어느덧 퇴근시간이 되어 약속장소로 걸어갔다. 친구는 30분쯤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해서 삼성역까지 내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있었다. 드디어 친구를 대면했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 어른스러워.. 성숙.. 아니 늙었다. 하하 .. 근데 친구 또한 나한테 작년보다 늙은 느낌이라며...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피부는 푸석푸석했다.

작년같으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회전초밥집을 들어갔다. 빙글빙글.. 맛나게 생긴 초밥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자니 군침이 흘렸지만, 친구도 나도 함부로 접시를 집어들지는 못했다. 무려 25000원짜리 접시가 4800원짜리 접시 색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하여 10접시를 딱 채워 먹었다. 그런데!! 친구가 샀다. 엄청난 고마움과 함께 자존심이 조금 상해서, 카페에서 너 먹고 싶은 만큼 케이크를 먹거라~!!! 했다. 근데 이 친구는 배가 엄청 부르다고... 자존심이 또 상했다. 애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밥도 많이 안 먹고.. 날씬하기까지 T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내년에는..흑... 잘 되겠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28살의 우리는 20살, 23살 때와 같이 여전히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결혼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막막한 기분이었다.

즐겁지만, 씩씩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왔다. 요즘 들어 한숨도 늘고.. 아 오른쪽 사랑니가 아파온다.. 턱 밑까지 멎든 것처럼 옥신옥신거리는데.. 나 요즘 사춘기인가?.... 참 마음이 복잡하다.